

《백년의 고독》(1967)의 작가 가브리엘 G. 마르케스의 새로운 책이 출간된다. 왕성한 대외 활동을 스스로 중단하고 로스엔젤레스에 칩거한 지 거의 5개월 만의 결실이다.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회고록 형식을 띠게 될 책의 제목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산다는 것(Vivir para contarlo)》이다.

**동생의 죽음이 자신의 삶 정리하는 계기 돼**

새로운 책 출간의 의미는 지난 3월 6일에 75번째 생일을 맞이한 작가의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할 것이다. 문학계의 이목을 뒤로 했던 긴 투병 생활에서 구한 값진 결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가는 1999년 6월 급작스런 무기력에 빠진 이후 '임파선 암'이라는 판명을 받았고, 한 때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리적으로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와중에도 그는 노벨상 수상 작가로서, 동시에 영원한 언론인으로서 조국 콜롬비아의 밀레니엄 행사에 참여하거나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을 이끌고 있는 마르코스와 인터뷰를 하는 등 공식 활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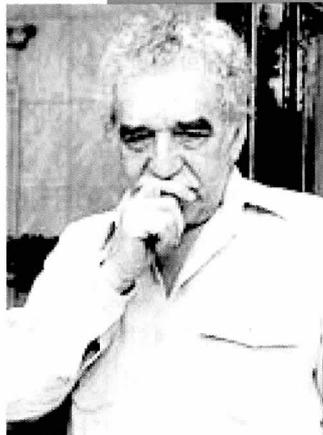
그러나 그런 그가 로스엔젤레스에서 의료진의 치료와 가족의 간호를 받으며 모처럼 안정을 찾고 글쓰기에 몰입하게 된 것은 갑작스런 친동생 엘리히오의 죽음이 계기가 됐다. 작가는 혈육이자 문학 동료를 잃은 순간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새로운 책의 출간 의미는 출판계뿐만 아니라 독서계에 끼칠 지대한 영향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작가는 노벨상 수상 작가이자 수천만권의 책을 독자의 서가에 꽂히게 만든 스테디셀러 소설가라는 단순한 위상을 뛰어넘어 살아 있는 신화적 존재로 인식돼왔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글쓰기를 통해 '미술적 사실주의'라는 독특한 소설 장르를 완성하면서 '죽어 있던 소설문학을 회생시킨' 현대문학의 거장으로서, 라틴아메리카의 격변기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행동하는 언론인으로서

# 회고록 엮어 후반기 문학 준비하는 마르케스

마르케스의 새책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산다는 것》

정창 | 번역가 · 출판기획자



최근 투병으로 초췌해진 가브리엘 G. 마르케스의 모습.

모든 이들의 뇌리에 각인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 3부작으로 엮은 회고록 형식의 소설**

이미 1990년에 구상에 들어갔다는 자신의 회고록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산다는 것》은 3부작으로, 마르케스가 살아오는 동안에 보고 듣고 겪은 과거의 경험을 생생한 현실로 되돌려 놓는 대서사다. 오는 5월 초 독일의 베텔스만 출판사에서 발간할 1권은 대략 6백여 쪽(본래는 1천 쪽이었다) 분량인데, 작가는 이 책에서 자신이 유년시절부터 프랑스로 가게 되는 1955년까지를 아우르게 된다. 2권은 대부분의 문학작품을 썼던 기간, 즉 1955년부터 노벨상 수상식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고독'을 수상 소감으로 피력했던 1982년까지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3권에서는 주로 자신과 인간관계를 맺었거나 맺고 있는 인물들, 예를 들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나 파나마의 오마르 토리호스 장군 등 무수한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록했던 글을 신개 된다.

새로운 책, 동시에 살아 있는 역사로 남을 책은 사실 지난한 작업 과정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르케스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산다는 것》을 쓰고자 3년 동안 자료조사와 검토기간을 거치면서 자신과 관계된 기존의 저술들을 다시 읽거나 분석했다.

또한 그는 단기간의 작업이 될 수 없다고 판단, 의사의 경고를 받아들여 모니터 앞에 있는 시간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로 한정하며 원고를 다듬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기록을 위해 여러 사람들의 기억이나 증언을 참고했다는 후문이다.

실질적인 첫 소설작품 《낙엽》에서 시작된 소설 문학, 이후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는다》 《마마그란데의 장례식》 등에서 그의 문학의 정점인 《백년의 고독》까지, 나아가 《죽장의 가을》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 《미로 속의 장군》 그리고 최근작인 르포 형식의 《납치 일기》 등으로 이어지는 그의 문학적 지평, 한편 그의 눈에 포착된 라틴아메리카의 실상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무수한 기사문과 리포트 형식의 글들...

오늘 세계의 독자들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미술적 사실주의의 거장이자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진정한 언론인의 용기를 보여준 '가보'(마르케스의 애칭)의 새로운 책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증언 문학이자 그 자체로서 역사 교과서가 될 것임을 확언해 마지않는다. 동시에 그의 새로운 책 발간은 문학계와 출판계의 커다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이 글에서 책 발간 소식 부분은 콜롬비아 기자 알레한드라 데 벤고에체아의 최근 리포트를 참조했음을 밝힌다). ■